

靑涼山의 ‘高山景行’ 이미지 形成 動因과 그 原理

- 『옛 선비들의 靑涼山 유람록』을 중심으로 -

정목주*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高山景行의 이미지 形成과 그 動因
- III. 高山景行의 이미지 形成 原理
- IV. 山水文學史에 있어 靑涼山의 存在 意義
- V. 결론

【 】

본고는 靑涼山(靑涼山)의 ‘고산경행(高山景行)’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형성의 동인(動因)은 무엇이며,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원리는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靑涼산이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에 의해 靑涼산을 도불(道佛)의 이미지에서 유가(儒家)의 이미지로 변모시키고, 퇴계(退溪) 이황(李滉)에 의해 주자(朱子)의 무이산(武夷山)에 비견(比肩)되는 ‘고산경행’의 이미지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였다.

靑涼산이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인(動因)은 靑涼산을 자연의 산 그 자체로만 보지 않고 퇴계가 태어난 곳이고 그가 노닐던 곳이고 그가 강학하던 곳이고 그가 학문을 일으켜 세운 곳이기도 하여 靑涼산 유람을 통해 그의 행적을 찾고 그의 유풍(遺風)을 찾아 그를 본받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은 데서 비롯되었다.

靑涼산의 ‘고산경행’ 이미지의 형성 원리는 제고(提高), 비하(卑下), 대치(對峙)의 방

* 계명문화대학교 강사

법이 작동하는데, 구심력(求心力)의 원리가 작용하는 제고의 방법은 청량산의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단선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원심력(遠心力)의 원리가 작용하는 비하의 방법은 도불의 이미지를 하강시키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산경행’의 이미지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구심력과 원심력의 원리가 동시에 작용하는 대치의 방법은 오히려 구심력에 탄력이 붙는 역동성을 가지게 되어 도불의 이미지는 더욱 하강하고 ‘고산경행’의 이미지는 더욱더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따라서 대치의 방법이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서술자의 의도를 더 효율적으로 노정(露呈)시키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고산경행’의 이미지로 이미지화된 청량산은 자연성을 지닌 산으로서의 효용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지닌 산으로서, 자기 성찰과 수양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청량산(靑涼山), 고산경행(高山景行), 이황, 주세붕,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문제제기

당(唐)나라 때 산수시인(山水詩人)인 유종원(柳宗元)은 “무릇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움이다[夫美不自美 因人而彰].”¹⁾라고 하였는데, 중국인인 오공정(吳功正)은 중국 역대의 걸작 산수시를 모아 『산수시주석(山水詩註析)』을 편찬하면서 그 발문(跋文)에서 유종원의 말을 근거로 하여 문학을 통하여 표현된 자연은 어디까지나 인간화된 자연이며, 그 미감(美感)도 자연성과 사회성이 통합되고 심미적 객체와 주체가 통합된 아름다움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자연 본래의 아름다움인 제1의 자연미(自然美)와 구분되는 제2의 자연미라고 주장하고 있다.²⁾ 곧 산수시란 자연을 대상으로 시를 썼

1) 柳宗元, 『柳河東集』 권27.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 아니라 그 자연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인간적 관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³⁾

자연을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은 산수시(山水詩), 산수유기(山水遊記)가 대표적 장르이다. 이 중 산수유기는 산수 자연을 유람하고 난 뒤에 쓴 일종의 기행문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관심을 두고 고찰할 텍스트는 청량산박물관에서 발간한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I이다.⁴⁾ 모두 47편으로 '~록(錄)', '~기(記)'의 형식을 띠며, 이 둘에 대한 서발(序跋)의 형식을 띠는 것도 있다. 청량산유람록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청량산의 이미지이다. 여기에서 청량산은 산수 자연으로서 청량산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미지화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결국 인간에 의해 드러나는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이란 것도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 이외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움이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미(美)를 추구(追求)하는 인간(人間)의 행위(行爲)는 자연(自然)과 인간(人間)과의 깊고 밀접한 상호 관계에서 파악되며, 미(美)의 외형적(外形的)인 형태(形態)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重要)하지만, 그 미(美)를 성립(成立)시키고 있는 어떤 원리(原理) 즉 로고스(Logos)를 발견(發見)하는 것⁵⁾도 중요하다. 이미지는 인간에 의해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성립시키는 원리를 찾는데 유용하다고 본다.

2) 吳功正, 『山水詩註析』, 中國 山西人民出版社, 1986, pp.429-431 재인용.

3) 주승택, 『淸涼山の 文學的 位相』, 『大東漢文學』 제12집, 대동한문학회, 2000, pp.232-233.

4) 본 논문의 텍스트는 청량산박물관에서 번역 발간한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I임을 밝힙니다. 이후 인용문은 이 책에 근거하여 번역문만 실고 원문은 생략합니다. 논문의 분량 등 편의를 위한 것이니 원문은 해당 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李敏弘, 『시인·작가의 이미지 創出論』, 『우리어문연구』 6, 우리어문학회, 1993, p.199.

이미지(image)의 사전적 의미는 상(像) 또는 영상(影像)으로 풀이되며, 육체적 지각 작용에서 이룩된 감각적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⁶⁾을 말한다. 인간의 지각으로 관찰된 객관적 대상을 주관적·추상적으로 재생한다는 말이니, 결국 이미지란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한 주관적 재생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인식의 주체와 객체로서의 대상이 이미지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청량산유람록에서는 청량산을 유람한 작자가 청량산의 견문을 통해 자연 그대로의 청량산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회화된 이미지를 드러낸다. 이런 사회화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들은 청량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청량산과 관련된 인물, 설화, 유적, 인물의 행적 등이 있다.

청량산유람록에서 사회화된 청량산 이미지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고산경행(高山景行)’의 이미지이다. 고산경행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거할(車輦)』편 “높은 산을 우러러보며, 큰 길을 따라 행한다[高山仰止, 景行行止].”에서 유래한 것으로, 높은 산과 큰 길처럼 덕행을 지닌 훌륭한 분을 우러러 사모함을 비유한 말이다. 이런 청량산의 고산경행의 이미지, 그 바탕에는 청량산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관점과 청량산에 사모할 만한 인물과 이념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깔려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I에 실린 유람록을 텍스트로 이를 분석하여 청량산의 고산경행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형성의 동인(動因)이 무엇이며,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원리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6) 成文閣版 『世界文藝大辭典』, 成文閣, 1975, p.1606 참조.

Ⅱ. 高山景行의 이미지 形成과 그 動因

1. 자연의 이미지에서 이념의 이미지로의 변모

산의 이미지는 크게 i)자연(自然)의 이미지, ii)선경(仙境)의 이미지, iii)이념(理念)의 이미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형성된다. 자연의 이미지는 산의 실경(實景)에 대한 담담하고 사실적인 묘사에서 형성된 이미지이며, 선경의 이미지는 산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풍광(風光)과 탈속적(脫俗的) 분위기(霧圍氣)에서 형성된 이미지이며, 이념적 이미지는 산에 이념적 색채가 덧씌어져 형성된 이미지이다. 이 세 가지 이미지는 일정한 층위(層位)를 형성하며 발출(發出)된다. i)만 드러나는 경우, i)과 ii)가 결합된 경우, i)과 ii)와 iii)이 모두 결합된 경우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ii)와 iii)이 결합된 경우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i)이 전제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i)과 ii)와 iii)이 모두 결합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또 i)과 iii)이 결합된 경우도 나타날 법한데, 실제로 이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념의 색채가 덧씌어지기 위해서는 선경의 이미지가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청량산의 이미지 형성에는 앞서 지적했듯이 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문성과 사회성이 작용하게 된다. 인문성과 사회성은 청량산과 관련된 인물, 설화, 유적, 인물의 행적 등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청량산유람록에서는 견문의 형태를 띤다. 그리고 견문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이미지 형성의 원천이 된다. 16세기 이전에는 주로 청량산 4대 성인(聖人)으로 알려진 원효(元曉), 의상(義湘), 김생(金生), 최치원(崔致遠) 등이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데, 이들은 이념의 이미지로서 청량산을 불가(佛家) 혹은 도류(道流)의 색채를 띠게 하였다. 그런데 16세기에 접어들면 유가의 이미지를 띠게 되는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과 퇴계이다. 신재가 청량산을 유람하고 지은 「유청량산록

《遊清涼山錄》과 퇴계가 신재의 『유청량산록』을 읽고 그 감상을 적은 「주경유유청량산록발(周景遊遊清涼山錄跋)」이 바로 그것이다. 신재의 『유청량산록』이 도불(道佛)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가의 이미지로 변모되는 발판이 되고, 청량산유람록의 전범(典範)이 되었다면, 퇴계와 그의 행적은 주자(朱子)의 무이산(武夷山)에 비견(比肩)되는 퇴계학의 성지로 발돋움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산수문학에서 비교적 언급이 없었던 청량산이 숨은 광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신재의 공이 크다. 그가 청량산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한 대목을 보자.

사사로이 우리나라의 여러 산을 말해 본다면, 웅장한 기운이 쌓인 것은 두류산만한 것이 없고, 맑고 험한 것은 금강산만한 것이 없고, 기이한 경치는 박연폭포와 가야산의 골짜기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단정하고 엄정하고 상쾌한 것은 비록 작지만 업신여길 수 없는 것으로 오직 청량산이 그러하다. <…> 우리나라의 이름난 산을 물으면 반드시 먼저 다섯 산을 이야기한다. 북쪽에 묘향산, 서쪽에 구월산, 동쪽에 금강산, 중앙에 삼각산이다. 그리고 가장 크고 남쪽에 있는 산이 두류산이다. 그러나 작은 산 중에 좋은 산을 물으면 반드시 청량산이라고 말한다.⁷⁾

우리나라의 여러 훌륭한 산들은 저마다 가지는 특장(特長)이 있다. 옹혼(雄渾)한 기운은 두류산의 특장이요, 청절(淸絶)함은 금강산의 특장이요, 기이하고 뛰어난 경치는 박연폭포와 가야산의 특징이다. 비록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청량산의 특장은 단엄(端嚴)하면서도 큰 시원스러움이다. 우리나라에 이름난 산이 많지만, 신재는 이 중에서 청량산을 꼽는다고 했다. 그 이유가 바로 작지만 선경(仙境)을 갖춘 산[小山之仙]이기 때문이다. 청량산이 자연의 이미지에서 선경의 이미지로 옮겨가는 중요한 언급이다. 청량산에 대한

7) 周世鵬, 「遊清涼山錄」, 『청량산유람록』 1, pp.18-19.

신재의 인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훌륭한 선경의 이미지에 사회성이 더욱 가미된 이념의 옷을 입힌다.

아, 이 산이 중국에 있었다면 반드시 이백과 두보가 시를 지어 읊었을 것이며, 한유와 유종원이 글을 지어서 구했을 것이며, 주자와 장식이 올라 감상했다면 마땅히 천하에 크게 알려졌을 것이다. 그런데 쓸쓸하게 천 년 동안 김생과 고운 두 사람에게 기대어 한 나라 안에서만 알려졌으니 탄식할 만하다. 이 산은 비록 이름은 안동에 속해 있지만, 그 아래는 모두 예안 땅이다. 송재와 농암 이후에 큰 선비들이 서로 오르면서 청량산은 안동의 산이라고 세속에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안에서 나왔다. 땅이 신령하여 인물이 난다는 설이 어찌 헛되지 않겠는가? 어찌 헛되지 않겠는가?⁸⁾

신재는 청량산이 중국에 있었다면, 이백, 두보와 같은 대시인과 한유, 유종원과 같은 대문장가 이 산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글을 지었을 것이며, 주자와 장식과 같은 대학자들이 은거지로 삼아 수양하고 그들의 학문을 전파하여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했을 것이라 장담한다. 주자의 운곡(雲谷)과 무이산(武夷山)처럼 말이다. 여기서 이념의 색채가 가미된다. 성리학의 본산이 된 무이산처럼 청량산도 유가의 성산(聖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투영되어 있다. 천 년 동안이나 청량산이 김생과 최치원 같은 도류(道流)의 이미지에 기대어 알려지게 된 것을 탄식하는 대목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런 유가의 산으로 탈바꿈하는 데에 선각자로서 싹을 틔운 인물은 송재(松齋) 이우(李隅)와 농암(叢巖) 이현보(李賢輔)이다. 이 두 사람이 청량산을 오르고 난 뒤로부터 예안과 안동의 큰 선비들이 앞 다투어 이 산을 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재는 청량산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청량산의 12봉우리

8) 周世鵬, 『遊清涼山錄』, 『청량산유람록』 1, pp.22-23.

의 이름을 고치거나 새로 짓게 된다. 불가나 도류의 이미지가 물론 나는 봉우리의 이름이 못마땅하여 의도적으로 개명(改名)을 시도한다.

그 내외의 여러 봉우리가 옛날에는 이름이 없었으나, 중들에게 전하여 내려 오는 것으로 내봉에는 오직 보살봉, 의상봉, 금탑봉, 연적봉이 있고, 외봉은 오직 대봉이 있다. 금탑봉과 같은 것은 치원봉이라 칭하는 것은 치원대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의상봉도 의상굴이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 그 누추함이 이와 같으니, 점필재가 두류산에 대해 “참으로 징험할 수 없다면 이름이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참람함을 잊고 이름을 붙이겠는가? 그러나 주자가 여산에 대해 기이한 절경을 만나면 곧 이름을 붙였으니 징험함이 없다고 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산의 여러 봉우리들은 백세를 지나며 이름이 없었는데 참으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된다. 만약 반드시 주자의 현명함을 기다려 이름을 붙인다면 이름 붙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우선 이름을 붙이고 뒤에 오는 총명한 사람이 고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찌 잘못이겠는가?)

신재가 청량산의 여러 봉우리의 이름을 고치거나 새로 짓게 된 까닭을 밝힌 대목이다. 주로 봉우리의 이름이 중들에 의해 전해져 온 것이다. 그래서 봉우리의 이름이 불가의 색채를 띤 불가의 이미지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는 이것이 못마땅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참람됨을 무릅쓰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그런데 이름이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러 줄 때 생명력을 지닌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붙인다고 한들 그 이름을 불러 주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청량산의 12봉우리에 대한 신재의 명명(命名)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이가 바로 퇴계이다.

9) 周世鵬, 『遊清涼山錄』, 『청량산유람록』 1, pp.19-20.

천지가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그 형체가 드러나기까지는 몇 천만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알 수 없다. 하늘이 이러한 경치를 감추어 놓고 땅이 그 기이함을 숨겨 놓았다가 바로 선생의 문장을 기다려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어찌 이 산이 한번 크게 때를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산의 여러 봉우리는 모두 불서의 황망한 말과 여러 부처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름으로 뒤덮여 있었으니, 이는 실로 선구의 옥됨이요, 우리 유자들의 수치였다. 이제 선생이 차레로 고쳐서 폐단을 씻어 버렸으니, 그 산령을 위로하고 정체를 빛나게 한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¹⁰⁾

퇴계는 신재가 청량산을 유람하고 쓴 「유청량산록」을 읽고 그 발문(跋文)에서 청량산 여러 봉우리에 대한 명명을 위와 같이 평가하였다. 불서(佛書)의 황망(荒茫)한 말과 여러 부처의 음혼(淫昏)한 이름으로 뒤덮여 있는 청량산의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선구(仙區)의 옥됨과 사문(斯文)의 부끄러움을 제감(除減)하여 청량산의 정채(精采)를 빛나게 했다고 큰 가치를 부여한다. 신재가 청량산의 이미지를 도불(道佛)의 이미지에서 유가로의 이미지로 전환을 시도했다면, 퇴계는 그 이미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퇴계 이후로 청량산을 유람하는 많은 사람들이 퇴계의 이 평가를 거듭 거론하면서 신재의 명명과 퇴계의 평가를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서른여섯 봉우리와 열두 암자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는 못하였으니, 산과 계곡이 반드시 내가 자신들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음을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일찍이 周愼齋가 청량산을 유람한 글에 대해 退陶 노선생께서 발문을 다음과 같이 썼다. “산의 여러 봉우리는 모두 佛書의 황망한 말과 여러 부처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름으로 뒤덮여 있었으니, 이는 실로 신선이 사는 고장의 옥

10) 李滉, 『周景遊遊清涼山錄跋』, 『청량산유람록』 1, pp.27-28.

됨이다. 신재 선생이 두루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 산신령을 위로하고 정체를 환히 빛나게 한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를 보고 명칭을 생각하고 형상을 찾으면 더욱 특이함을 느낀다.¹¹⁾

생각해 보건대, 청량산은 愼齋와 퇴계 이후로 佛土를 혁파함으로써 精彩가 빛나는 선경의 한 구역이 되었고, 온통 도덕의 광채를 입음은 朱子의 武夷山과 같이 되었다.¹²⁾

퇴계로부터 200년이 지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퇴계의 평가가 거듭거듭 인용되면서 청량산의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다음 대목은 승려 도청(道淸)이 거의 무너져가는 백운암을 중수(重修)하고 기문(記文)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지은 『백운암기(白雲庵記)』이다. 백운암은 청량산 자소봉 최상층에 있었던 암자로 퇴계가 어릴 때 독서하던 곳이기도 하다. 퇴계는 이곳에 올라 “다만 수석이 영롱하고 절집의 창문이 소연함을 보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져 아득히 선경에서 노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와서 비로소 유산의 묘미를 알 수 있었다.”¹³⁾고 고백하면서 청량산 유산(遊山)이 어떠해야 가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예로부터 명산과 절경에는 반드시 고인과 일사들이 은거하거나 유식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를테면 여산의 白蓮社와 화산의 운대, 그리고 武夷山의 무이정사와 같은 절이 아니면, 도관으로 유자들이 숨어서 수양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백운암이 청량산에 있는 것이 또한 어찌 우연이겠는가? 이에 문득 생각하기를 고승과 고사가 있어 마치 遠公과 陶陸의 무리들처럼 결사해서 처할 것인가? 문득 비승과 황백의 도술을 행하는 자가 마치 진도남처럼 문을 닫고

11) 南龍燮, 『淸涼山遊覽錄』, 『淸량산유람록』 2, pp.272-273.

12) 趙雲道, 『淸涼山遊記』, 『淸량산유람록』 2, p.184.

13) 李滉, 『白雲庵記』, 『淸량산유람록』 1, p.31.

누워 한번 잠자기를 한 달 동안 할 것인가? 또한 천 년 뒤에 참선비로 도를 밝히고자 하는 자가 그 무리와 더불어 왕래하며 유상할 것인가? 이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¹⁴⁾

청량산은 송재와 농암이 청량산에 오르고 주변의 선비들이 이 둘의 자취를 따랐던 때로부터 이미지 변신이 시작되었고, 신재가 청량산에 올라 12봉우리에 명명하여 유가의 산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퇴계가 그 뒤를 이어 유가의 산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청량산이 자연의 이미지에서 선경의 이미지로, 다시 이념의 이미지로 환골탈태하면서 청량산은 유가의 성산(聖山)으로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2. 이념의 이미지로서 고산경행과 그 형성 동인

청량산이 신재와 퇴계를 거치면서 이념의 색채를 짙게 풍기며 유가의 이미지로 완전히 환골탈태하게 되었다. 이 이미지 속에는 두 영상이 오버랩 되어 나타난다. 하나는 저 멀리 주자의 무이산이고, 주자가 강학하던 무이정 사이며, 이념으로서 성리학을 완성한 주자의 영상이다. 또 하나는 가까이 청량산을 오가며 공부하고 강학하고 유람하던 퇴계의 영상이다. 이 둘은 별개의 영상이 아니다. 늘 오버랩 되어 나타나는 영상이다. 퇴계가 존송하던 주자는 만고의 스승으로서 늘 퇴계의 후광(後光)이며, 조선에서 주자에 비견되는 퇴계는 바로 동방의 주자이기 때문이다. 주자-무이산-성리학은 바로 퇴계-청량산-퇴계학이 되는 것이다. 퇴계 이후로 청량산은 주자와 퇴계가 오버랩 되어 본반(本盤)이 할 경모(敬慕)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수렴되는데, 그것은 바로 고산경행(高山景行)의 이미지이다.

14) 李滉, 『白雲庵記』, 『청량산유람록』 1, p.32.

고산경행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거할(車輦)」편에 나오는 말이다. “높은 산을 우러러보며, 큰 길을 따라 행한다[高山仰止, 景行行止].”는 뜻인데, 고산은 고숭(高尚)한 덕행을 비유한 것이고, 경행은 큰 길로 광명정대(光明正大)한 행위를 비유한 것이다. 곧 숭고(崇高)한 덕행을 지닌 훌륭한 대상을 경모함을 비유한다. 고산경행이란 말은 실제 청량산유람록에 자주 언급되는 말이고, 우러러 사모한다는 넓은 의미로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말 중에 하나다. 청량산을 유람하면서 언급되는 말이고, 서술자의 태도가 반영된 주관적 인식이란 점에서 사회성이 가미된 청량산의 이미지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럼 청량산이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청량산을 통해 어떤 훌륭한 대상을 경모한다는 말이다. 그럼 경모할 대상은 무엇인가? 청량산에 투영된 퇴계의 영상이다. 물론 퇴계의 영상에 주자의 영상이 오버랩 되어 있다. 먼저 고산경행의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대목부터 살펴본다.

① 서른여섯 선계의 봉우리가 안개와 노을 속에 옥처럼 서 있으니, 속으로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길을 걸어간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건마는, 노닐며 완상하는 것이 보잘 것 없고 또한 헤어지게 되니 매우 탄식할 만하였다.¹⁵⁾

② 간절히 생각하니 이 산은 예안의 북쪽 경계에 있어 노선생께서 왕래하면서 머무르던 곳으로 산의 이름은 이 때문에 더욱 소중해졌다. ‘높은 산을 우러러 본다’는 생각은 오늘에서야 더욱 간절한데, 노닐며 완상하기에 바빠 선생께서 즐거워하신 바의 만분의 일도 엿볼 수가 없으니 탄식을 다할 수 있겠는가?¹⁶⁾

15) 任必大, 『題清涼山錄後』, 『청량산유람록』 2, p.196.

16) 朴忠源, 『清涼山遊錄』, 『청량산유람록』 2, p.201.

③ 청량산은 예안 동북쪽에 있다. 퇴계 노선생이 일찍이 이곳에 와서 머무신 이래로 이 산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절집 밖으로 선생의 자취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어찌 고산경행의 생각이 사람마다 같지 않겠는가? 아! 예나 지금이나 산놀이하는 자는 모두 훌륭한 경치를 구석구석 찾아보고 조용히 감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으니, 산을 오르는 묘한 맛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밖에 있음을 누가 알았겠는가? 오직 노선생만이 산수를 좋아하심으로 인하여 그 仁과 智의 뜻을 드러내셨다.¹⁷⁾

④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산은 곧 우리 퇴도 선생께서 왕래하면서 거닐며 감상하던 곳이고, 우리 선조인 梧峯 선생(申之悌) 또한 올라서 시를 읊던 곳이다. 아름다운 자취가 없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전하여 읊고 있는데, 내가 2백년 뒤에 찾아왔으니 높은 산을 우러러보는 생각만으로 후생이 어찌 모방하겠는가? 그리움을 어찌할 수가 없다.¹⁸⁾

⑤ 걸어서 수릿재에 오르니, 산 전체의 반쪽 면이 우뚝 솟아 우리들의 눈속으로 들어온다. 중화가 손을 나에게 말한다. “저기가 청량산이라네.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다[仰彌高].’는 감탄이 없을 수 없네.” 이 말을 되받아치며, “백 리를 가는 사람에겐 구십 리가 반이라네. 남들은 나아가지 못할까 근심할 뿐이지만, 나는 아직 힘이 부족한 자는 보지 못했네.” 함께 한바탕 웃는다.¹⁹⁾

①~④는 고산경행이 직접 언급되는 경우이고, ⑤는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경우이다. ⑤의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다[仰彌高].’는 『논어(論語)』의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말로 공자의 제자인 안연이 공자의 도가 끝없이 높음을 비유한 말이다. 청량산을 올려다보면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다고

17) 金夢華, 『遊清凉山序』, 『청량산유람록』 2, p.213.

18) 申鼎周, 『遊清凉山錄』, 『청량산유람록』 2, p.280.

19) 權正忱, 『清凉山遊覽錄』, 『청량산유람록』 2, p.145.

하는 것은 결국 고산경행의 뜻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가진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미지는 그 이미지를 발동(發動)하는 동인(動因)을 갖게 마련이다. 청량산이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지니게 되는 시초(始初)는 신재가 청량산을 유람하고 쓴 『유청량산록』이다. 그가 이 글을 통해 밝히고 싶은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동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청량산의 이미지가 원효, 의상, 김생, 최치원 등 이른바 네 성인으로 인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며 못마땅해 한다.

나이 든 중이 안개 속을 가리키며 이르기를, “저기가 金生窟이고, 저기가 致遠臺이고, 이 뒤에 元曉寺가 있고, 서쪽에 義湘峯이 있습니다. 옛날에 네 성인께서 이 산에 거처하였는데, 道義之交를 맺어 산에 갔다가 오면서 여기에서 쉬었다고 합니다.”내가 응하여 말하기를, “원효는 신라 중엽의 중이고, 김생과 의상도 모두 신라에 태어났지만 세대가 다르다. 가장 나중은 최치원으로 그는 신라 말기에 태어났다. 어찌 서로 따랐겠느냐? 너는 모르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나를 속이지 말라!”하니 이때부터 중들이 허망하고 잡된 소리를 내지 않았다.²⁰⁾

신재가 처음 청량산에 올라 나이 든 중의 안내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와의 대화 중 일부이다. 나이 든 중이 소개하는 굴, 대, 절, 봉우리는 모두 청량산 4대 성인과 관련된 이름들이다. 신재는 이 점에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신라에서 태어난 것은 같지만 세대가 다른 이들이 서로 도의지교를 맺었다고 설명하는 중의 말에 쓸데없는 이야기로 속이지 말라고 호통을 친다. 신재는 유자(儒者)로서 기본적으로 배불(排佛)의 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그리고 청량산이 주자의 무이산처럼 되기를 바라는 속내가

20) 周世鵬, 『遊清涼山錄』, 『청량산유람록』 1, pp.8-9.

있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속이는 중 개인에게 호통을 친 것이 아니라, 불가(佛家) 전체가 가지는 허탄(虛誕)함에 대한 공격임을 알 수 있다. 신재가 청량산의 여러 봉우리를 명명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불가와 도류의 이미지로 굳어진 청량산의 이미지를 바꿔 보고 싶은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이다. 퇴계 역시 마찬가지다. 『주경유유청량산록발』에서 신재의 『유청량산록』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은 신재의 의도에 대한 동조이자, 퇴계 자신의 의도이기도 한 것이다.²¹⁾

후대에 청량산을 유람한 선비들도 청량산을 유람하는 목적이 단순히 산수 자연에 대한 완상(玩賞)만이 아니었다. 고산경행의 대상으로서 선현과 그들의 행적을 본받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두었다. 그 중에서도 경모의 대상으로 해동의 주자라 운위(云謂)되는 퇴계가 고산경행의 주대상(主對象)으로 우뚝 서게 된다.

⑥ 대개 이 산은 형세가 그렇게 높고 크지도 않으며 봉우리도 웅장하거나 기이하지 않다. 나라 안의 여러 산과 비교해 보면 하나의 작은 언덕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데도 그 형승이 사방에 소문났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퇴계 선생이 이 산의 아래에서 태어나 천년 동안 끊어졌던 학문을 일으켜 세웠고 성리학의 정맥인 주렴계와 程子를 이어서 성대히 해동의 주자가 되었으니, 이 산이 드디어 주자의 무이산과 같을을 다투게 되었다. <…> 자강이 진실로 이로 말미암아 나아가 선생의 학문을 배우고 선생의 행동을 행하며 선생의 말씀을 말하여 그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이 산이 빛나게 될 것이며 선생도 더불어 빛나게 될 것이다.²²⁾

21) 각주 9)의 인용문 참조.

22) 姜再恒, 『題權子剛清涼錄後』, 『청량산유람록』 2, pp.159-160.

⑦ 아! 청량산이 세상에 이름난 까닭은 진실로 12개의 봉우리가 우뚝하고 기이하며 장대한 때문이다. 더하여 선생께서 몸소 다니시며 쉬었기에 더욱 빛이 난 것이다. 후인들의 우리름이 이 산 자체에 있지 않으니 물과 땅을 차마 황폐하게 할 수 있겠는가? 암자가 저와 같이 황폐해져도 거주하는 승려는 보수하여 수호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비들 중에 이곳을 지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또한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²³⁾

⑧ 비록 그렇지만 나는 이 산에 대해서도 느낀 바가 있다네. 높은 봉우리와 층층의 산이 천 길이나 깎아지른 듯 서 있는 것은 군자의 기상이 아니겠는가? 외로운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것은 군자의 절의가 아니겠는가? 청산녹수에 비구름이 걸혀 시원한 바람이 불고 달이 떠서 깨끗하게 티끌 한 점 없는 것은 군자의 회포가 아니겠는가? 이 몇 가지를 곁하여 지니고 있는 이로는 오직 우리 노선생 한 분이 계시 뿐이지. <...> 오늘의 청량산 유람은 대개 속세에 찌든 더러움을 씻어내어 의기소침한 정신을 분발시키며, 노선생께서 남긴 기풍을 찾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단지 유람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이네. 이것이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일세. 내 말이 틀린다면 이 산이 미워할 것이네.²⁴⁾

⑥에서는 먼저 퇴계를 한껏 높인다. 청량산 아래에서 태어나 끊겼던 학문을 일으켜 세우고, 정주학(程朱學)의 정맥을 이어 해동의 주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청량산은 주자의 무이산과 비겨도 그 존재 의의가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청량산에 오버랩 된 퇴계의 학문을 배우고 그의 행동을 따르고 그의 말을 말하며 정진한다면 퇴계와 청량산이 더욱 그 광채를 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⑦에서는 청량산이 세상에 이름난 까닭이 훌륭한 자연경관과 퇴계 때문이라 하고, 후자에 더 큰 의미를 둔다. 후인들이 청량산을 양모(仰慕)함이 청량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산경행할 퇴계의

23) 宋煥箕, 『清涼山遊覽錄』, 『청량산유람록』 2, p.168.

24) 權正忱, 『清涼山遊覽錄』, 『청량산유람록』 2, pp.157-158.

영상에 있다 하고, 퇴계의 행적을 보존하지 않은 승려들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⑧에서는 청량산을 통해 군자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런 군자의 모습을 다 갖춘 이는 퇴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청량산을 유람하는 이유가 단지 유람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퇴계의 유풍(遺風)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이처럼 청량산이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동인은 청량산을 청량산 그 자체로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청량산은 퇴계가 태어난 곳이고 그가 노닐던 곳이며, 그가 강학하던 곳이고, 그가 학문을 일으켜 세운 곳이다. 청량산 유람을 통해 거기서 퇴계의 행적을 찾고 유풍을 찾아서 그를 본받는 것이 유람의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이 결국 퇴계와 청량산이 만세토록 더욱 빛나게 되는 길이고 고산경행의 이미지가 길이 보존되는 길인 것이다.

Ⅲ. 高山景行의 이미지 形成 原理

청량산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가의 이미지는 부각시키고 도불(道佛)의 이미지는 가리고자 하는 서술자의 태도에 기인한다. 제고(提高), 비하(卑下), 대치(對峙)의 방법인데, 제고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유가의 이미지만 끌어올려 칭예(稱譽)하는 방법이며, 비하는 유가의 이미지에 배치(背馳)되는 도불의 이미지만 폄하(貶下)하는 방법이며, 대치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유가의 이미지는 끌어올려 칭예하는 동시에, 도불의 이미지는 폄하하여 서로 맞서게 함으로써 유가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법이다.

먼저 서술자가 유가의 이미지만을 부각시키는 제고의 방법으로 앙고형

(仰高型)이다.

⑨ 다시 안중암 앞으로 나아가니 널판을 걸어 벽 위를 싸둔 곳이 있었다. 바로 노선생께서 題名하신 곳이라고 하나 다 떨어져 버려 지금은 찾을 필적이 없었다. 이곳에 유람한 자들이 또한 다투어 동쪽 기둥과 문지방과 처마에 성명을 기록하여 조금도 비어있는 곳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곁은 검게 더럽히지 않았으니, 영남 사람들이 선생을 존모하는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승려 중 무지한 자일 경우에도 모두 노선생이라고 칭하고 성명과 호를 거론하지 않았다. 훗날의 풍속이 선생을 경모함이 한결같이 이와 같으니, 아! 성대하구나.²⁵⁾

⑩ 여러 산에 경치 좋은 곳은 옛날에는 명칭이 없었는데 周愼齋가 곳곳마다 명명하였고, 퇴계 선생에 이르러 이 산의 승경을 몹시 좋아하여 자칭 ‘청량산인’이라고 하며 歌詩에 실어 그 명성이 비로소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마치 武夷의 산수가 晦翁을 만났기에 천고토록 빛이 나 후학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붙이고 우리러 흠모하는 대상이 된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그렇다면 청량산은 퇴계 선생을 만난 것이 다행 중에 다행이었다.²⁶⁾

⑪ 우리들이 백운암의 창건을 도모한 것은 단지 절경인 仙山을 버려둔 채 아무도 주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先師[퇴계]의 記文을 읽어보니, 선생이 후세에 사람들에게 전한 뜻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으며, 雲谷雜詠에 화운한 시 또한 흥에 기탁한 것이 깊음을 볼 수 있다. 雲谷과 武夷는 이미 가볼 수 없으나, 선생이 평소에 스스로 淸涼山人이라 칭했으니, 이곳 또한 운곡과 무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의 도를 사모하는 자가 어찌 절집이라 핑계 대고 여우와 토끼의 굴이 되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미 중창하였고 보면 또한 그저 절집이 되고 말게 할 수는 없었다.²⁷⁾

25) 李瀾, 『遊淸涼山記』, 『淸량산유람록』 2, p.103.

26) 權璟, 『遊淸涼山錄』, 『淸량산유람록』 2, p.26.

27) 李光庭, 『題白雲庵堂室圖』, 『淸량산유람록』 2, p.139.

⑨에서는 안중암은 퇴계가 제명한 곳이기도 하나 지금은 그 필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고, 퇴계의 유적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통해 영남 사람들의 퇴계에 대한 존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무지한 승려의 경우도 노선생이라 칭하며 성명과 호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퇴계에 대한 경모의 태도를 드러내어 유가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했다. ⑩에서는 주신재가 이름이 없던 청량산 봉우리에 명명한 일과 퇴계가 청량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좋아하여 '청량산인'이라 자호(自號)하며 시가(詩歌)에 신게 됨으로써 청량산의 명성이 크게 알려진 일을 들고, 이것을 무이산의 산수가 주자를 만나 오래도록 빛이 나게 되고 후학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붙여 우러러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 비꼴다. 청량산이 퇴계를 만난 것이 다행이라 하여 유가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했다. ⑪에서는 백운암의 창건이 절경인 청량산이 버려져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퇴계가 쓴 기문(記文)을 회고한다. 이 기문을 통해 후세 사람들에게 전한 뜻이 우연이 아니며, 주자의 운곡잡영에 화운한 시도 의미심장하다고 했다. 퇴계가 후세 사람들에게 전한 뜻과 운곡잡영에 화운한 뜻은 무엇인가? 바로 청량산이 주자의 운곡과 무이처럼 되기를 바라는 뜻이다. 그래서 퇴계의 도를 사모하는 자가 고산경행의 대상이 될 청량산의 백운암을 중건(重建)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모두 신재·퇴계와 그들의 행적을 거론하면서 유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퇴계와 그의 행적에 무게가 더 실린다. 퇴계에 오버랩 된 주자의 영상이 이를 증명한다. 청량산이 주자의 운곡과 무이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술자의 태도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이로써 청량산의 고산경행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서술자가 유가의 이미지에 배치되는 도불의 이미지를 폄하함으로써 유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폄비형(貶卑型)이다.

⑫ 다음날, 아침을 먹고 그 절의 승려와 함께 산을 나와 가족신 한 벌로 길을 인도케 하고, 승려 한 사람은 버루를 받들고 앞길을 인도했다. 각각 짧은 지팡이를 짚고 연대사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한 고개를 넘으니 중대암이 있고, 그 곁에는 十王殿이 있었다. 큰 금빛 불상 하나가 상 위에 놓여 있는데, 그 얼굴 모습은 피기스럽고 양발은 드러나 있었다. 그 좌우로 각각 자주색 불상 다섯이 홀을 잡고 띠를 드리우고 신을 신고 상 위에 있었으며, 머리에 쓴 것은 면류관이기도 하고 갓이기도 하였다. 각각 한 동자들이 물건을 받들어 올리는 모습이였다. 승려의 말이 “가운데 분은 곧 염라대왕입니다. 자비로서 살생하지 않는 일을 주로 하셨으니, 시왕은 각각 그 뜻을 품부 받아 감히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라고 한다. 불가의 사람 속임이 이와 같도다. <…> 동쪽으로 돌아가니 안중암이였다. 옛날 안중암의 노파가 아침에 메밀을 심어 저녁에 베어와 면을 만들어 먹이니, 고운이 이로 인해 여자부처를 조각하여 그곳에 모셨다고 했다. 승려들의 말은 모두가 황당하기가 이와 같았다.²⁸⁾

⑬ 길을 돌아 극일암이 있던 터에 이르렀다. 그곳에 안중암의 옛 터엔 작은 석상 하나만 남아 있다. 그 일을 살펴보니 괴이하고 신기하다. 이러한 일은 성인께서 말씀한 바가 아니다. 계다가 應眞菴이 있어 응진이 錫杖을 날렸던 일로 이름을 지은 것인가? 응진은 이 산에서 노닐던 신선이 아니련만, 이렇듯이 이름 지었으니 모두 허황되고 황당한 것이다. 동쪽으로 돌아 화엄대에 당도했다. 그 옆에 상청량암과 하청량암의 터가 있는데, 아직도 작은 암자가 남아 있다. 암자는 매우 퇴락하고 여승 3명만 있다. 대의 이름을 물었다. 그 설명이 괴이하고 허탄하였지만, 우선 그것을 기술하여 의심스러운 것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모두 전하고자 한다. <…> 승려의 말은 당나라 때의 징관이라 하니 이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가 불경을 주석할 때 부처들이 물러났다는 말도 모두 근거가 없는 말이다. 나는 이 말이 만약 떠돌게 된다면, 한 시대의 의혹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여겨져 걱정이 된다.²⁹⁾

28) 柳熙之, 『遊清涼山記』, 『청량산유람록』 2, pp.48-49.

29) 權聖矩, 『清涼山遊覽錄』, 『청량산유람록』 2, pp.78-79.

⑭ 김생의 필법은 실로 볼 만한 점이 있고 고운도 신라 말기의 호걸스런 선비일세. 그러나 성현의 학문에 비추어 보면 아무래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점도 있네. 만약 고운이 道에 들어가는 문을 알아 釋迦와 老子를 밀치고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 우리의 道 한 줄기를 창도하였다면, 오히려 도가 이렇게 민멸되어 징험할 수 없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네. 그러나 애석하게도 方外에 자신의 자취를 맡기고 파란을 부추겨 불교가 성행하도록 하였다네. 이는 실로 천고의 한 가지 개탄할 만한 일일세.³⁰⁾

⑫에서는 여정이 청량산 중대암 곁에 있는 시왕전이다. 이곳에 있는 불상들을 먼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승려의 설명에 대해 사람을 속이는 일이라 비판한다. 또 안중암에서 안중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다고 평가한다. ⑬에서는 안중암의 석상이 건문의 대상이다. 그 일을 살펴보니 괴이하고 신기하며 성인께서 말씀하신 바도 아니라고 하면서 모두 허황되고 황당하다고 평가한다. 상청량암과 하청량암 터에 있는 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괴이하고 허탄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없는 말들이 세상에 떠돌게 된다면 의혹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걱정한다. 모두 허탄한 불가의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반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⑭에서는 먼저 김생의 필법과 최치원의 인물됨을 인정하지만, 성현의 학문에 비추어 보면 높이 평가할 수 없다고 한다. 그 까닭은 이들이 도류(道流)와 불가(佛家)로 흘렀기 때문이다. 특히 최치원은 불교가 성행하도록 부추기는 일까지 하였다며 개탄한다. 유가의 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냉혹한 평가이다.

여기에선 모두 유가의 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폄하이다. 불가의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표출되고, 유가의 선비이다가 도불(道佛)에 빠져 버린 인물들에 대한 냉혹한 평가와 개탄이 뒤따른다. 이

30) 權正忱, 『清涼山遊覽錄』, 『청량산유람록』 2, pp.149-150.

로써 유가의 이미지와 배치되는 도불의 이미지에 대한 폄하와 반감이 유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술자가 유가의 이미지는 끌어올려 칭예하는 동시에, 도불의 이미지는 폄하하여 서로 맞서게 함으로써 유가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앙고(仰高)와 폄비(貶卑)의 병치형(並置型)이다.

⑮ 아! 이 산이 중국에 있었다면 반드시 이백과 두보가 시를 지어 읊었을 것이며, 한유와 유종원이 글을 지어서 구했을 것이며, 주자와 장식이 올라 감상했다면 마땅히 천하에 크게 알려졌을 것이다. 그런데 쓸쓸하게 천 년 동안 김생과 고운 두 사람에게 기대어 한 나라 안에서만 알려졌으니 탄식할 만하다.³¹⁾

⑯ 아! 선생은 진실로 이 산의 주인이라 이를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이 산의 이름이 알려진 것도 선생 덕분이다. 그렇다면 이 산은 선생으로부터 처음으로 크게 인정을 받은 것이다. 앞 시대의 최치원과 김생 때문에 청량산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작은 만남에 불과하다. 이 산의 봉우리와 바위, 시내와 돌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선생이 유람하며 즐겨 구경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산은 옛 모습 그대로이나 선생의 풍모를 좇을 수 없다. 선생보다 백세 뒤에 태어나 이 같은 산빛과 물소리 사이에서 선생을 뵈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다. 다만 만 길이나 높이 솟은 절벽을 바라보면 선생의 범할 수 없는 지조를 느낄 수 있다.³²⁾

⑰ 일찍이 듣건대 최고운이 이곳에서 신선술을 배워 신선과 승려들과 서로 찾아다니며 세상을 희롱하고 불평하는 기운을 불었다고 하니, 이 말이 참으로 진실이라면 최고운은 과연 세상을 잊은 것인가? 아니면 불우한 운명으로 세상을 처한 것인가? 그 당시의 상황을 나 역시 듣고 알았다. '계림[신라]의 누른

31) 周世鵬, 『遊清涼山錄』, 『청량산유람록』 1, pp.22-23.

32) 朴琮, 『清涼山遊覽錄』, 『청량산유람록』 2, p.229.

있, 곡령[송도]의 푸른 솔(鷄林黃葉, 鶴嶺青松)에 북풍이 차갑게 불어오는 시대에 처하여 哲人の 행동함은 쇠잔한 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군자의 말은 천하의 법도가 되고 군자의 행동은 천하의 법칙이 된다. 뜻을 얻어 벼슬을 하면 도를 천하에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善으로 修身할 뿐이다. 하필 索隱行怪하여 최고운처럼 행동해야 하겠는가?³³⁾

⑮에서는 청량산이 두 이미지로 대치된다. 청량산이 중국에 있었다면 주자와 장식과 같은 성리학자들에 의해 천하에 크게 알려졌을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 퇴계 이전에 유가의 이미지와 배치되는 도불의 이미지가 팽배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도불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김생과 최치원에 의해 청량산이 좁은 우리나라에만 알려진 것을 탄식한다. ⑯에서는 청량산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퇴계의 덕분이라 하고, 최치원과 김생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작은 만남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平價切下)한다. 청량산에 퇴계의 자취가 남아 있지 않은 곳이 없는데, 먼 후대에 태어나 선생의 풍모를 좇을 수 없음을 한스러워한다. 그러나 퇴계의 자취가 남아 있는 청량산을 바라보며 범할 수 없는 퇴계의 지조를 앙모한다. 유가의 이미지인 퇴계의 영상과 도불의 이미지인 김생과 최치원을 대치시켜 전자는 칭예하고 후자를 폄하하여 유가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⑰에서는 먼저 최치원에 대한 견문이 제시된다. 그런데 그의 행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유가에서 말하는 군자라면 유자로서 처신을 해야 할 터인데, 최치원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색은행괴(索隱行怪)를 일삼아 유자로서의 도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색은행괴는 『중용장구(中庸章句)』 주자(朱子) 주(註)에 나오는 말로, 본래 '소은행괴(素隱行怪)'로 되어 있는 것을 색은행괴로 해석한 것이다. 숨어 있는 공벽한 이치를 찾아내어 괴이한 행동을

33) 姜再恒, 『清涼山記』, 『청량산유람록』 2, p.111.

하는 것을 말한다. 공자는 “색은행괴를 나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치원의 색은행괴는 신선술을 배워 신선과 승려들과 서로 찾아다니며 세상을 희롱하고 불평한 기운을 붙인 것이다. 올바른 유자, 즉 군자로서의 상과 군자의 상에서 벗어난 최치원을 등장시켜 올바른 군자의 상을 칭예하고 색은행괴한 최치원의 행적을 비판함으로써 유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퇴계로 대표되는 유가의 이미지와 김생과 최치원으로 대표되는 도불의 이미지를 대치시키거나 유가의 올바른 군자상과 색은행괴한 최치원의 행적을 대치시키고 있다. 이때 유가의 이미지는 높여 칭예하고 배치되는 도불의 이미지는 폄하 혹은 비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이미지가 대치되어 대비의 효과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고, 결국 유가의 이미지는 더욱더 부각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 고산경행 이미지의 형성 원리로서 제고, 비하, 대치의 방법이 작동하는데, 제고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미지를 끌어올려 칭예하는 방법으로, 부각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구심력(求心力)의 원리가 작용하며, 비하는 배치가 되는 이미지를 깎아내려 폄하하는 방법으로, 배치가 되는 이미지를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원심력(遠心力)의 원리가 작용하며, 대치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미지는 제고하고 배치가 되는 이미지는 비하함으로써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하여 두 힘의 원리가 충돌하게 되는데, 결국은 구심력에 더 큰 탄력을 붙게 하여 구심력을 더욱 강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구심력의 원리가 작용하는 제고의 방법은 청량산의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단선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원심력의 원리가 작용하는 비하의 방법은 도불의 이미지를 하강시키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산경행의 이미지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구심력과 원심력

의 원리가 동시에 작용하는 대치의 방법은 오히려 구심력에 탄력이 붙는 역동성을 가지게 되어 도불의 이미지는 더욱 하강하고 고산경행의 이미지는 더욱더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따라서 대치의 방법이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서술자의 의도를 더 효율적으로 노정(露呈)시키는 좋은 방법이 된다.

IV. 山水文學史에 있어 清凉山の 存在 意義

산수 자연이 문학으로 형상화될 때는 산수 자연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또한 산수의 실경(實景)이 아름다운 것만이 명산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산수 자연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성이 그 산수 자연에 결합될 때 더 큰 빛을 발하게 된다. 산으로 말하면 산 그 자체를 비롯하여 그 산에 존재하는 유물·유적, 그리고 그런 유물·유적을 남게 한 인물과 그 인물의 행적 등이 결합되어 그 산은 비로소 명산이란 이름을 얻게 된다. 바로 자연성과 사회성이 결합된 산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청량산은 자연성과 사회성이 아주 잘 결합된 명산 중의 명산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산수문학에서 금강산과 지리산 다음으로 많이 문학으로 형상화된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금강산이나 지리산에 비해 그 골이 깊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지만, 천하의 명산으로 발돋움한 데는 신재와 퇴계의 영향이 지대하다. 청량산이 신재로부터 퇴계를 거치면서 유가의 이미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주자의 무이산에 비견되는 퇴계학의 성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퇴계 이후에도 많은 문인 학자들이 청량산 유람을 성지를 순례하는 것처럼 하고, 고산경행의 유가적 성산(聖山)으로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청량산이 고산경행의 이미지로 우뚝 서게 된 데는 신재보다 퇴계의 영향이 훨씬 크다. 후대의 많은 유람록에서 보여주듯이 고산경행할 대상은 바로 퇴계이기 때문이다. 고산경행은 곧 청량산이 추상화, 관념화된 퇴계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영남의 이름 없던 작은 청량산이 퇴계학의 성지로 거듭나게 된 것은 퇴계의 공이며, 산수문학에 있어서도 그 위상도 퇴계와 퇴계학단과 퇴계를 경모하는 선비들에 의해 이미지화됨으로써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산이 가지는 기능과 효용이란 측면이다. 산이 주는 기능과 효용은 적지 않다. 현대인에게 산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게 하고, 생활에 지친 심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안식의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산이 제공하는 효용이 이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반쪽의 효용에 불과하다. 옛 선비들은 산을 ‘심신유계(心身遊憩)’의 공간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산을 산 그 자체로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이 산수 자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데에는 바로 이미지화된 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럼 이미지화된 산은 무엇인가? 산이 가지는 자연성과 인간에 의해 새로 옷을 입게 된 사회성의 결합이 만들어낸 산이다. 실경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휴식과 안식의 공간으로서 지친 몸에 원기를 불어넣고 회복시키는 것이 자연성을 지닌 산이라면, 자기 성찰과 수양의 공간으로서 고산경행할 대상은 사회성을 지닌 산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이 잘 조화로우려 산이 가지는 효용은 배가될 터이다. 청량산은 이 둘이 잘 조화된 전형을 보여주는 산이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산의 효용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산이 가치를 재인식할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이상에서 청량산의 고산경행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형성의 동인이 무엇이며,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청량산은 신재와 퇴계 이전에는 청량산의 4대 성인으로 알려진 원효, 의상, 김생, 최치원 등에 의해 도불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세상에 알려졌다. 신재가 청량산을 유람하고 지은 『유청량산록』과 퇴계가 신재의 『유청량산록』을 읽고 그 감상을 적은 『주경유유청량산록발』에 의해 청량산은 도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가의 이미지로 변모한다. 신재가 청량산을 유가의 이미지로 세상에 알리는 데에 기여했다면, 퇴계는 주자의 무이산에 비견되는 퇴계학의 성지로, 곧 고산경행의 이미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

청량산이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동인은 청량산을 청량산 그 자체로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청량산은 퇴계가 태어난 곳이고 그가 노닐던 곳이며, 그가 강학하던 곳이고, 그가 학문을 일으켜 세운 곳이다. 청량산을 유람한 사람들은 청량산을 통해 퇴계의 행적을 찾고 유품을 찾아서 그를 본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다. 경모의 대상인 퇴계가 청량산에 투영됨으로써 청량산은 자연성을 지닌 산뿐만 아니라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고산경행 이미지의 형성 원리로써 제고, 비하, 대치의 방법이 작동하는데, 구심력의 원리가 작용하는 제고의 방법은 청량산의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단선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원심력의 원리가 작용하는 비하의 방법은 도불의 이미지를 하강시키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산경행의 이미지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구심력과 원심력의 원리가 동시에 작용하는 대치의 방법은 오히려 구심력에 탄력이 붙는 역동성을 가지게

되어 도불의 이미지는 더욱 하강하고 고산경행의 이미지는 더욱더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따라서 대치의 방법이 고산경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서술자의 의도를 더 효율적으로 노정시키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고산경행의 이미지로 이미지화된 청량산은 자연성을 지닌 산으로서의 효용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지닌 산으로서, 자기 성찰과 수양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國譯退溪全書』(1~29권), 退溪學研究院, 1993.
- 청량산박물관,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민속원, 2006.
- _____,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II』, 청량산박물관, 2009.
- 成文閣版, 『世界文藝大辭典』, 成文閣, 1975, p.1606.
- 김동협, 『유학자의 자연이해의 한 局面 - 주세붕의 『遊清涼山錄』과 소위 이황의 『清涼山歌』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15, 대동한문학회, 2001, pp.125-156.
- 박희병, 『韓國山水記 研究』, 『古典文學研究』 제8집, 1993, pp.210-232.
- 孫五圭, 『退溪의 山水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 沈慶昊, 『退溪의 山水遊記』, 『退溪學研究』 제10집, 단국대학교퇴계학연구소, 1996, pp.169-207.
- 李敏弘, 『시인·작가의 이미지 創出論』, 『우리어문연구』 6, 우리어문학회, 1993, pp.195-207.
- 李鍾默, 『退溪學派와 清涼山』, 『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2001, pp.3-31.
- 全丙哲, 『『清涼志』를 통해 본 退溪 李滉과 清涼山』, 『南冥學研究』 제26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pp.301-330.
- 주승택, 『清涼山의 文學的 位相』, 『大東漢文學』 제12집, 대동한문학회, 2000, pp.207-235.

Abstract

The Motive and Principle in *Cheongnyansan* Forming Image
of 'High Mountain and Wide Road'

- Focused on *Cheongnyansan Travel Records by Old Scholars* -

Jeong, Mok-ju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Cheongnyansan*(청량산, 清涼山)'s image of 'High Mountain and Wide Road(고산경행, 高山景行)' was formed, what the motive of its formation was and the principle in forming the image was.

In the process of *Cheongnyansan*'s making its image of 'High Mountain and Wide Road,' the image was changed from Taoism and Buddhism to Confucianism by *Ju Saebung*(주세붕, 周世鵬 : pen name *Sinjae* 신재, 愼齋) first. Then it was developed into the firm image of 'High Mountain and Wide Road' by *Yi Hwang*(이황, 李滉; pen name *Toegye* 퇴계, 退溪) and the image became compatible with 'Zhu Xi(주자, 朱子)'s Mount Wuyj(무이산, 武夷山).

Toegye was born around *Cheongnyansan* and there he strolled about, gave his lectures and established his study. When old scholars went sightseeing this mountain as in *Cheongnyansan Travel Records by Old Scholars*(『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they didn't see a natural mountain as it was. They considered following *Toegye* by looking for his deeds and spirit handed down as their important purpose. Thus, this purpose became the very motive in *Cheongnyansan*'s forming image of 'High Mountain.'

The principle in forming the image of 'High Mountain' works using three means, enhancing(제고, 提高), degrading(비하, 卑下) and confronting(대치, 對峙). Used by centripetal force principle, the first means of enhancing has effect on strengthening *Cheongnyansan*'s image of 'High Mountain.' Next in centrifugal force principle, degrading has effect on weakening the image of Taoism and Buddhism, whereas having effect on improving the image of 'High Mountain.' As one of three means confronting gives dynamic effect on centripetal force

gaining momentum even though it is made by two force principles centripetal and centrifugal at the same time. This third means is a good way to highlight the image of 'High Mountain' and reveal narrators' intentions more effectively, in that the image of Taoism and Buddhism becomes more decreased but the image of 'High Mountain' becomes more reinforced.

Thus, being imaged in the image of 'High Mountain,' *Cheongnyansan* has not only its usefulness as a mountain with natural aspects but also as a mountain with soci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means that *Cheongnyansan* has a great value of its existence in terms of providing the place for introspection and self-discipline.

Key Word : *Cheongnyansan*, High Mountain and Wide Road, *Yi Hwang*, *Ju Saebung*,
Cheongnyansan Travel Records by Old Scholars

정목주

소속 : 계명문화대학교 강사

전자우편 : 72yani@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2월 1일 투고되어
2017년 2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3월 10일 게재 확정됨.